

백두대간 보전 · 관리대책[요약]

1. 추진경위 및 배경

- 산악단체, 녹색연합이 중심이 되어 백두대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
 -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백두대간 보전관련 전문가·단체 협의회 8회 개최('95~'96)
 - 백두대간 보전관련 연구용역 3회 실시('97~'99)
 -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 등 37명 발의로 '99년 정기국회에 「백두대간보전법안」을 제출하였으나, 15대의원 임기만료 폐기됨
 - 백두대간 보전·관리 기본계획 시달(2000. 2월)
 - 보전과 이용이 함께 강조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보전지역과 시책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.
- 백두대간 마루금 주위의 토지이용 및 소유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범위·보전시책을 구체화하고, 입법추진코자 함

2. 현황 및 보전 필요성

가. 현 황

-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, 설악산, 태백산, 속리산, 덕유산, 지리산까지(전장 1,400km) 단절없이 이어지고, 동쪽과

서쪽물길이 서로 섞이지 않는 산줄기(山徑)의 중심축을 말함

※백두대간 지역은 1大幹, 1正幹, 13正脈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남한의 백두대간은 6개도(강원, 충북, 경북, 전북, 경남, 전남) 32개시·군에 걸쳐있음 (지리산 천왕봉-강원 향로봉까지 도상거리 : 670km)
- 서식 식물종은 총 1,326종(5강 120과 527속 1,143종 2아종 162변종 19품종)으로 전체식물 4,071종의 33%가 분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의 寶庫

나. 보전 필요성

- 인문지리적 측면
 -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일체감을 갖게 하며, 생활영역의 기반이 되는 유역을 가르는 分水界의 역할을 함
- 자연생태적 측면
 - 한강, 금강, 낙동강, 섬진강 등 주요 하천이 백두대간에서 발원하고 있음
- 산림산업적 측면
 - 전통 고유의 소나무·참나무림 등의 생육조건이 좋아 良質大徑材 생산이 가능하며, 산림자원 비축기지 역할

- 물성과 약성이 풍부해 산간재배 식·약용식물의 보고(寶庫)이고, 자연휴양·생태관광·환경교육적 가치도 가지고 있음

3. 보전·관리상의 문제점

- 산지개발 논리에 밀려 훼손은 많이 되었으나, 보전노력은 미흡
- 훼손지에 대한 생태적 복구 미흡
- 등산, 휴양객의 증가로 황폐화되거나 고유식생이 훼손되고 있음
- 언론, 시민단체 등을 통해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으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미숙한 실정

4. 보전·관리방안

-백두대간(白頭大幹)을 한반도 산림생태축으로 보전·관리

(보전방안)

- 대간의 마루금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를 설정 특별관리
- 산림생태, 생물종다양성, 경관등을 고려, 백두대간 마루금 주위에 일정한 「관리범위」를 설정, 기초조사 및 합동 확인 조사 실시
- 관리범위 보전을 위한 입법화 추진
- 동 법에서 「관리범위」를 엄격한 「보전지역」으로 규정
- 「관리범위」 중국유림에서는 입법(立法)전에도 절대 보전지역으로 운용
- 공용·공공용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

○ 백두대간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상 보전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, 보호·제한지역을 확대

- 보전임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
- 천연보호림(산림유전자원보호림),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등 지정 확대

○산림생태계 동태 조사 지속 실시

(훼손지 복구방안)

○ 백두대간 훼손지역에 생태복원 조림 지속 실시

- 조림예정지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조림 실시

- 생태·환경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실시

- 조림등 복원을 위해 필요시 복구사방사업 병행 실시

○ 대간의 보전상 필요한 지역이 사유림인 경우 적극 매수 추진

○ 넓은 면적이 훼손되고 복구가 기술상 어려운 지역은 복구방안에 대해 별도 용역의뢰

○ 보호목적에 맞는 생태적 관리 적극 추진

- 천연보호림, 보안림 등 특별보호지역 산림관리는 지정목적(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 보존, 경관보전, 수원함양, 재해방비 등)에 맞는 최적 산림관리기법을 개발·적용

○ 복원사업 사후관리 철저

- 산림생태계 복원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, 신규 및 기존 복원복구사업실행지에 매년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

가·응용 도모

(대간 보전의 틀 안에서 활용추진)

- 백두대간을 청소년의 정서순화 및 산림교육의 장으로 활용
- 백두대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산촌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녹색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

○ 대간지역의 산림자원도 지속가능한 생태유지 범위내에서 이용 추진

- 금강송 등 고부가가치 임목을 한정 생산하고, 소나무·참나무림 육성권을 설정, 고유 Brand화 추진
- 육림은 생태보전 위주로 실시하고, 임목생산보다는 산림 생태자원의 보고로 유지

